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이 은 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사) 씨즈
이 은 애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1) 충남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조직간 연계 상황과 인적, 물적 자원의 순환 구조를 파악하고, (2) 충남 사회적 경제 지도 작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며, (3)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충남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를 대면조사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충남 사회적 경제의 특성과 강점, 그리고 기반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
-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기반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충남내 지역 한 곳을 선택하여 지역내 사회적 경제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충남 사회적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충남도 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사례 조사

- 본 조사는 충남지역에 입지한 총 113개의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충남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전체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심층 사례조사를 위해 총 8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정하여 진행됨.

- 선정된 심층 사례조사 대상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4개소, 마을기업 1개소, 시민단체 1개소,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 선정한 천안 지역 추가 심화 조사 기업 2개소 등 총 8개임. (<표 1> 참조)

<표 1> 사례조사 대상 업체

분류	단체명	지역	조직 형태	사업 내용	대표자 (사무국장)
마을 기업 (1)	홍동 마을활력소	홍성군	비영리단체	마을자립지원센터 / 네트워크 사업	박상우
사회적 기업 (4)	얼굴 있는 먹거리	서천군	영농조합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이재국
	즐거운 밥상	천안시	주식회사	도시락, 뷔페	박찬무
	온양온천 시장	아산시	주식회사	재래시장 활성화	황의덕
	난장 앤 판	천안시	주식회사	문화 예술	김철기
시민 단체	천안 KYC	천안시	시민단체	지역사회 시민운동	강운경
추가 조사	아름다운 동행	천안시	주식회사	외식업/ 수익 기부	김태응
	산새	천안시	주식회사	외식업 /인문학 강좌	강운경

- 심층사례조사 대상 업체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가운데 유형별, 업종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며, 2010년 선정된 마을기업,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
-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조직형태, 사업 영역별로 보아 대표성을 지니도록 선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충청남도 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천안 KYC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킴.
- 시민단체는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조사대상으로 추천하여 심화 사례로 추가

<표 18> 사례조사 대상 업체 유형별 구분

분류		업체 수	업체명
지역	농촌형	2	마을활력소, 얼굴있는 먹거리
	도시형	6	즐거운밥상, 온양온천, 난장앤판 천안 KYC, 아름다운 동행, 산새

조직 형태	영농조합	1	얼굴있는 먹거리
	주식회사	5	즐거운 밥상, 온양온천, 난장애판 아름다운 동행, 산새
	비영리단체	2	천안 KYC, 마을활력소
사업 영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1	얼굴있는 먹거리
	서비스 /외식업	3	즐거운 밥상, 아름다운 동행, 산새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2	온양온천, 마을활력소
	문화 예술	1	난장애판
	지역사회 시민운동	1	천안KYC

2) 홍성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 조사

- 충남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사회적 경제 관련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내 사회적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주체별 관계망의 특성을 정리함.
- 현재 홍성군에는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 자립형 공동체 사업 2개소, 마을기업 2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가 지역사업을 진행중
- 홍성군 대상 조사는 지자체, 지역대학, 협동조합, 생협 등 생산자 조직, 지역내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마을모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표 3> 참조)
-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의 현황 및 관계망, 지역내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들과의 구성 등을 파악

<표 3> 홍성군 심층면접 대상 조직 및 면담자 (무순)

구분	방문지	담당자
지방정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박창수 과장
지역대학	청운대 건축공학과	장동민 교수
협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	홍성축협	강희식 이사
	홍동농협	정인모 전무
	풀무신협	강현주 상무
마을기업 등 회사조직	풀무생협	강애숙이사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	류근철 대표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 (풀무생협, 소포장센터등)	서현철 센터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정성진 대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사무국장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조유상 대표
	다살림 마을기업	정예화 대표
	광천토굴새우젓시장	김영규 사무국장
마을모임 및 시민단체 등	홍성자활센터장	윤명희 센터장
	홍성 YMCA	김오열 사무총장
	내현권역추진위원회(거북이마을)	전병환 위원장
	홍동면 금평리	이기왕 이장
	마을활력소	주형로 공동대표 박상우 사무국장

3) 분석 목적 및 방법

-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충남 사회적 경제 단위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망 분석을 수행
- 연대 구조 분석은 심층사례조사 대상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 영역 등 섹터별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간 관계를 확인하고 연계망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대구조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

[1단계]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분석을 위한 대상을 추출한 후 분석대상의 연대구조 및 자원 연계망 파악

[2단계] 파악된 생태계 구성요소간 연대구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 구분에 기초한 생태계 분석 모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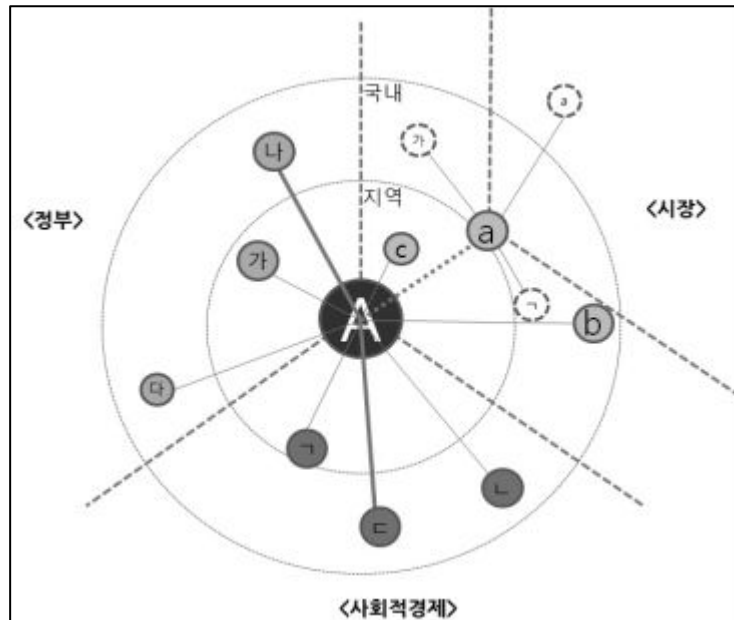
[3단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시민단체 등 심층조사 단체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 ▶ 8개 단체에 대한 조사 수행
- ▶ 홍성 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

[4단계] 조사내용 분석을 통한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생과정과 현황 파악

[5단계] 심층 조사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영역별 관계망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그림 1] 생태계 분석 모형의 사례



< 범례 설명 >

1. 바탕의 동심원은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범위를 의미 (단체가 위치한 시군-충남-국내 등)
2. 동심원은 해당단체와 관계를 맺는 주체별로 구분하여 <정부(공공)>, <시장>, <제3섹터-사회적 경제>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있음.
3. 각 영역에 속하는 관계 단체들을 다시 작은 원으로 표기함. (작은 원의 크기는 관계도와 비례하며, 원의 크기가 클수록 관계도가 높음을 나타냄.)
4. 해당 단체와 관계 단체들 간 연결선은 연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직선 : 실제 자원이 오가지는 않으나 무형의 내용적인 연대가 있는 경우
 - 화살표 : 실제 자원이 오고가는 연계의 경우를 의미
5. <제3섹터-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색깔이 들어간 원은 일반 시민 영역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

3. 조사 결과 종합분석

I. 충남도 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심층사례조사

1) 단체별 조직개요

- 충남도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총 8개 단체(1차 6개, 심화 추가 2개)의 조직개요를 정리 (<표 4> 참조)

<표 4> 사례조사 대상 단체의 조직개요 요약

단체명	연혁		소재지	법적 지위	기타
즐거운 밥상	2005 2007.12 2010.8 2010.11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공동체 인정 주식회사 설립 충남형 SE 인증	천안시	주식회사	충남형 사회적 기업
얼굴있는 먹거리	2008.10 2010.3 2010.11	영농조합 설립 희망근로 CB사업참여 충남형 SE 인증	서천군	영농조합	충남형 사회적 기업
마을활력소	2010.7 2010.9 2011.3	주민자치 마을모임 자립형 마을공동체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홍성군	비영리 민간단체	마을기업
온양온천 시장	2009.9 2010.10 2010.11	온양전통 시장 상인회 (주) 온양온천시장 설립 충남형 SE 인증	아산시	주식회사	충남형 사회적 기업
난장애평	2004.12 2010.11 2011.5	창단 (비영리민간단체) 충남형 SE 인증 주식회사 전환	천안시	주식회사	충남형 사회적 기업
천안KYC	1995 1999	천안사랑 청년회 한국KYC 천안지부 등록	천안시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아름다운 동행	2010.9 2010.10 2010.12 2011.1 2011.2	충남 사회적 기업 포럼 조직 사회적 기업 교육 진행 시민 주주 공모 창립총회 희망칼국수 개점	천안시	주식회사 (시민주주)	천안 지역 심화조사 사례
산새	2010.10 2010.12	사회적 기업 교육 참여 주식회사 설립	천안시	주식회사 (워커즈 컬렉티브)	

- 전체 8개 단체 중 6개 조직이 영리 조직의 법적 형태(주식회사 5, 영농조합 1)
- 2개 조직이 비영리 민간단체
- 개별 사례에서 살펴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각 단위의 출현과정은 현재 충남도 전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유사한 패턴을 나타냄.
- 충남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나 비영리단체 등 시민기반 영역에서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성, 성장하여 경제적 활동을 위해 영리법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
- 반면 일반 시장 영역에서 발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판단
- 앞으로도 당분간은 충남도 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들이 출현하고 활동하는 것은 기존의 자활이나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등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가능함.
- ‘천안KYC’ 사례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떠한 외부 지원도 없이 자생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목적 의식적으로 결의하고 조직하게 된 경우이며,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시민 기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 등 외부 대자본에 편승되지 않은 일반시장 영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요소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음. (예: ‘온양온천시장’)

2) 사업내용 및 조직 목표

- 특징 1 :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
- 사업내용만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됨.
- 해당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어떠한 사업이든 그 사업내용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즐거운 밥상’ - 도시락 사업이 주 사업분야이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락 사업체와 달리 ‘즐거운 밥상’의 목표는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들에 대한 적정한 영양공급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창출이 목표

☞ 이러한 목표때문에 ‘즐거운 밥상’은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공급에 있어서는 추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전액 도시락 제작에 투입하고 있으며, 소량의 노인도시락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체 추가 예산을 투입중

- 특징 2 : 지역사회 순환적 경제구조 구축에 대한 시도

- 예 : ‘온양온천시장’ - 지역의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받기보다는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거쳐 지역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농산물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직거래 하는 쪽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추진중

- 특징 3: ‘지역’과 ‘전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 예 : ‘난장안판’ - 전통문화 계승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이를 통해 한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시도

- 특징 4 : 오랜 시민사회기반 활동에 바탕을 둔 협력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

- 예: ‘마을활력소’와 ‘천안KYC’ - 그 자체로 특정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반 구축에 진력하는 간접 지원 단위임.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자원 및 정보 유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출현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

☞ 같은 시민사회기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하더라도 출현 경로에는 차이

- ‘마을활력소’의 경우 자체만으로 보면 짧은 연혁의 신생조직에 불과하나, 그 출현배경에는 흥성의 오랜 시민기반 활동과 내용이 응축된 결과물

- ‘천안KYC’는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조직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단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민기반으로 전환

→ 8,90년대 정치 민주화 운동으로 출발했던 시민 진영의 활동들이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증거

3) 조직 구성

- 사례조사대상 조직의 대표(사무국장)의 특성 : 연령대는 40대가 대다수로 학생운동 및 시민운동 조직의 활동가 경력이 다수

- 시민운동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특징 (예 : ‘난장애판’이나 ‘온양온천시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
- 이러한 대표 및 주요 활동가의 경력은 우리 사회 운동 및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특성 및 강점을 보여주는 한편, 영리조직을 운영하는 기업가 운영 능력 부족, 기존 시장질서에 대한 정교한 대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등 기업적 전문성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리더들의 역량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문 경력자 그룹의 조직들의 경우, 그 분야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업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경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의 어려움이나 기존 시장 방식의 답습 등의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핵심 활동가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핵심은 ‘지역’
 ☞ 이러한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인식과 지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제 지역에서 얼마나 긴밀한 관계와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
- 조사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조직당 평균 8명 정도가 근무하며 전원 조직이 입지한 소재지 거주자임. (<표 4> 참조)
- 높은 지역민 고용 비율은 지역 내 실업률 해소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남녀 비율은 업종별 특징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좀 더 높은 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구성원의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기업인 경우)의 취약 계층 고용 비율은 약 62%에 달함.
- 취약 계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46%로 매우 높고 뒤를 이어 수급자 및 한부모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이 약 39%의 비율을 나타냄.
- 지역내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지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여할 가능성 시사

<표 5>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구성원 특성 요약

단체명		구성원 규모	거주지	월 평균 급여	취약계층 유무
즐거운 밥상		11명 (남4,여7)	천안시	170만원	6명 (수급자 등 저소득)
얼굴있는 먹거리		7명 (남5,여2)	서천군	97만6천원	3명 (고령자, 청년실업)
온양온천시장		16명 (남5,여11)	아산시	96만원	15명 (고령자, 저소득)
난장애판		8명 (남7,여1)	천안시	100만원	2명 (청년실업)
마을활력소		7명 (남2,여5)	홍성군	80만원	-
아름다운 동행 (희망칼국수)		6명 (남1,여5)	천안시	160만원	-
산새		6명 (남2,여4)	천안시	전일근무자 1명 180만원 (파트 시간당 5,000원)	-
합계		61명 (평균8명)	지역 100%	평균 115만원	26명
성별		연령대			
남	여				
26	35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22	24	5	10
취약계층 내용		고령자	저소득	한부모	청년실업
		12	9	1	4

4) 제 무 관 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임.
- 대표 사례로 조사된 조직 중 대다수가 모두 1억 이하의 평균 약 2천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시작한 경우
- 매출 규모 역시 ‘즐거운 밥상’과 ‘아름다운 동행’을 제외한 조직들이 대부분 월 1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영업장이 대부분
- 가장 자본 규모가 큰 ‘아름다운 동행’의 경우,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하는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주주가 자본을 조성하여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

<표 6>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재무현황 요약

단체명	자본금	매출규모 (‘10 or ‘11 추정치)	손익 여부	생산(서비스) 제공 지역	
				충남도 내	기타
즐거운 밥상	3천만	5억5천만	+	100%	
얼굴있는 먹거리	8백만	1억5천만	-	70%	30%
마을활력소	천5백만	1억8백만	+	80%	20%
온양온천시장	4천만	1억2천만	-	100%	
난장애판	1천만	8천만	-	70%	30%
천안 KYC	회원 2010년 기준 324명		+	100%	
아름다운동행 (희망칼국수)	1억2천만	2억8천만	-	100%	
산새	5백만	1억8천만	+	100%	
평균	3,257만원	2억원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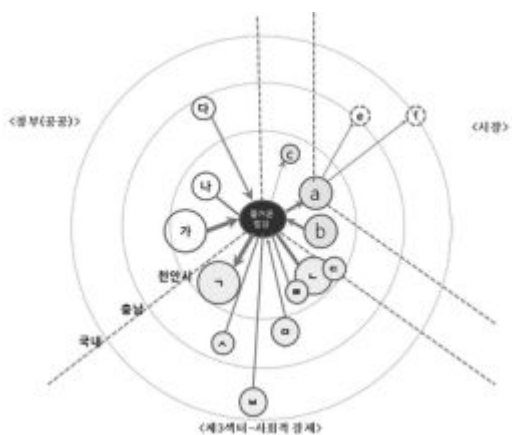
- 손익 상황으로 보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같은 외부 지원이 중단될 때,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 따라서 대자본과 비교할 수 없는 영세한 규모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및 일부 보호된 시장, 우선구매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
-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인증 사회적 기업 형식 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는 소규모 출자자들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 등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제 출현할 가능성도 있음 (예: ‘산새’)
-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여주는 지역 내 성과측면에서는 지역민 고용비율이 100%,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충남도 내 공급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운 비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인력 및 자본의 순환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충남도 내에서 수행하는 지역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외부 대기업 유치시 낮은 지역민 고용율이나 자본의 외부 유출 등과 대비되는 경제 활동 성과를 보여준.

5) 연대구조 내용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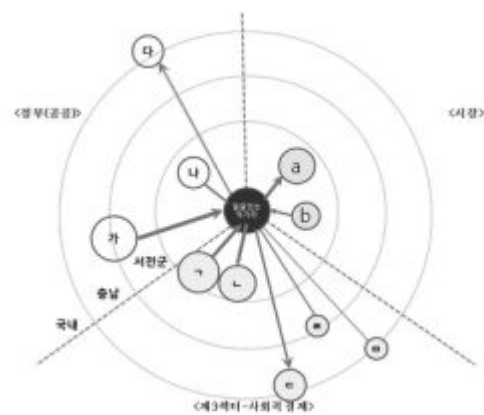
- 사례조사 대상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구조를 사업유형과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 비교분석은 개별단체별 연대구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유형별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두 개 단체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
- 일대일 비교가 어려운 단체의 경우 개별단체의 연대구조 특성을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과 비교하여 고찰

['즐거운 밥상' vs. '얼굴있는 먹거리']

- 두 조직 모두 지역 내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 단위로서의 유사성은 있으나 각각의 영역별 네트워크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영역 : '즐거운 밥상'은 소재지인 천안시와 가장 높은 관계도를 보이는 반면 '얼굴있는 먹거리'는 해당 지자체인 서천군과의 관계도가 낮고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충남도와의 관계도가 더 높음. → 단기적 연대관계 치중
- 사회적 경제영역: '즐거운 밥상'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자신들의 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노조그룹 등 과 연대하고 있는 반면, '얼굴있는 먹거리'의 경우 제3섹터 영역의 연대가 있기는 하나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구매력 있는 지지 그룹과의 연대는 상당히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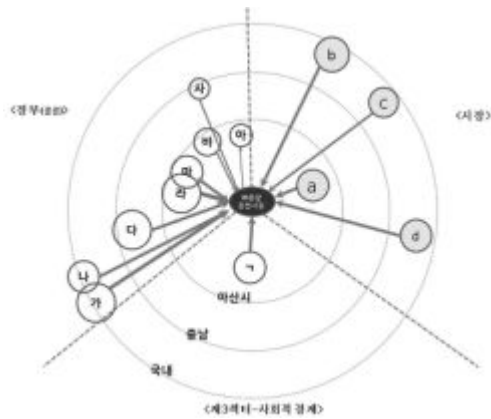


< 즐거운 밥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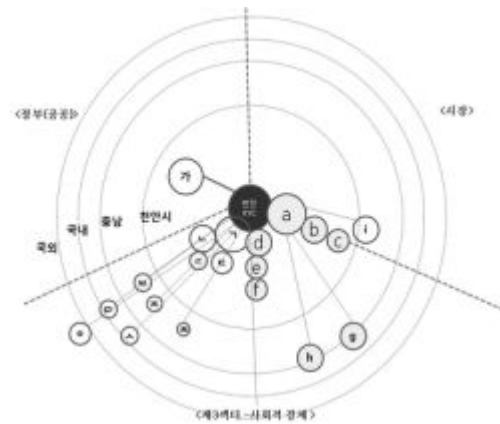


<얼굴있는 먹거리>

['온양온천시장' vs. '천안 KYC(산새)']



< 온양온천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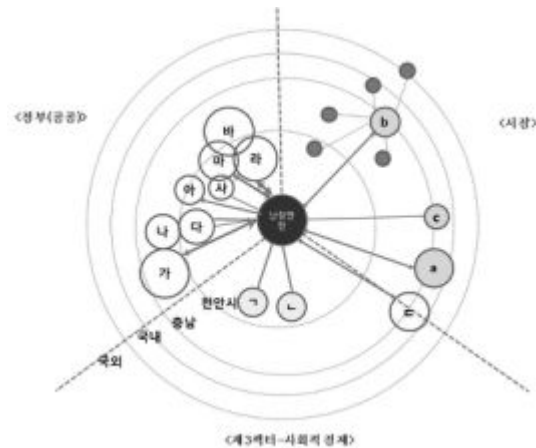
< 천안KYC(산새) >

- 두 조직은 순수하게 (영리목적의) 민간시장 기반인 조직과 비영리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음.
- '온양온천시장'의 경우, 연계는 주로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에 국한되고 있으며 제3섹터 영역 및 여타의 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연대가 취약함.
- 반대로 '천안KYC'는 비영리 시민단체의 성격상 정부나 일반 시장 영역의 네트워크는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연대관계가 자신이 속한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냄.
- 각각의 조직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으로서 자기 기반을 더욱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관계망을 보다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을 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예: 온양온천시장의 우호적 시민기반 확립 필요성)

['난장엔관']

- '난장엔관'의 연대관계도 업종의 특성상 정부 공공 영역의 연대가 매우 높고 시장과의 연대관계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임.
- 제3섹터, 시민기반과의 연대는 천안지역 사회적 기업 관련 모임에 한정된 낮은 연대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적 지지를 얻어내고 전통문화 예술 분야 계승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영역의 연대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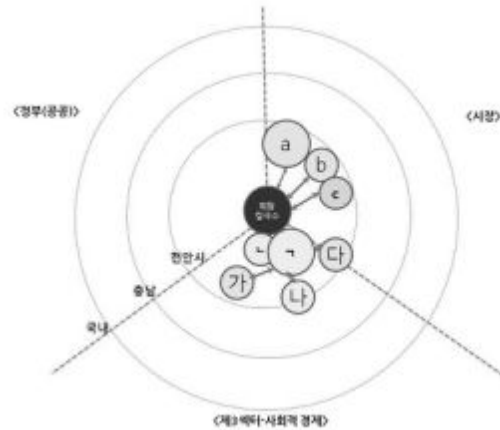


< 난장애판 >

- 또한 지역 기업으로서 정착하기 위해 천안지역에서의 상설 공연 등 일정정도 지역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희망칼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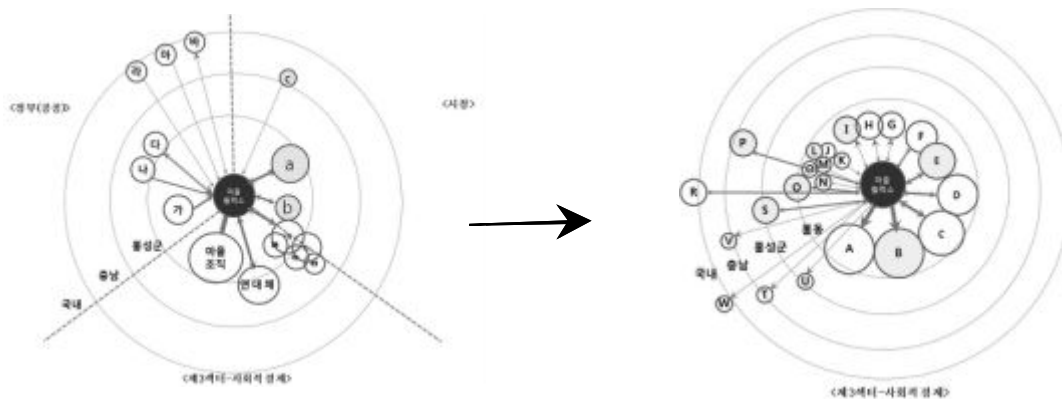
- '희망칼국수'는 모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의 시민 주주 그룹이 천안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간접적인 연계망은 매우 풍부한 반면 직접적인 관계망은 아직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간접 기반만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연대 구조를 갖기가 힘들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초기 자금 조성 단계에서 발현되고 있는 시민 주주 그룹의 역동이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체를 구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식회사 형태로서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참여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사업적으로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름다운 동행 -희망칼국수 >

['마을활력소']

- '마을활력소'는 치밀하고 다양한 연대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해당 단체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부분임.
- 특히 제3섹터와 사회적 경제 부분의 연대관계는 매우 치밀하고 지역적 기반이 건설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구조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
- 이는 '마을활력소'의 기능이 시민기반 조직과 연대가 다양하게 발달한 흥동지역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모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마을활력소'는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배가되도록 하는 지원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다만 활동과 연계의 공간적 범위가 홍성군 - 더 특정해서는 흥동면 일대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성군, 더 나아가 충남 사회적 경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한적인 역할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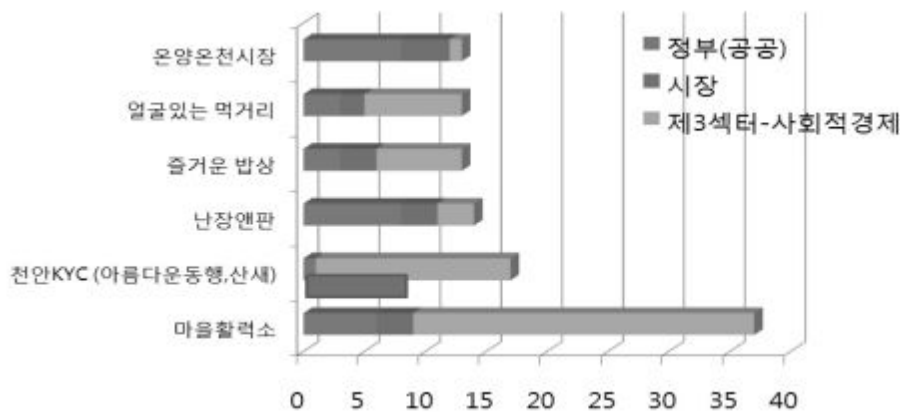


< 마을 활력소 - 마을활력소를 둘러싼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 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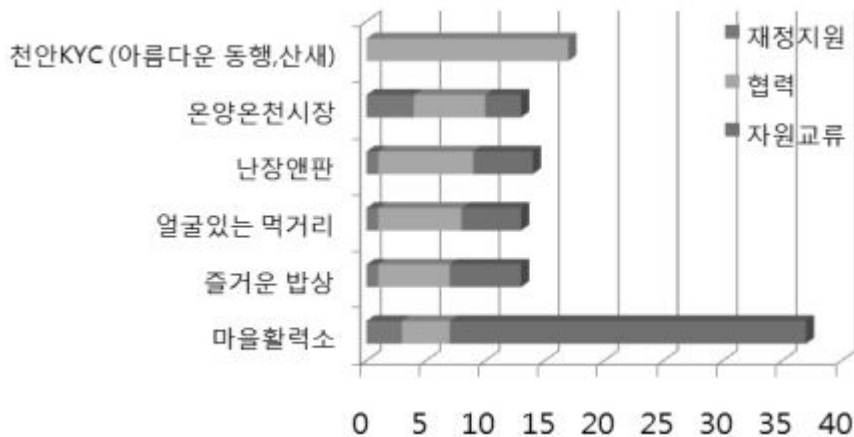
7) 연대구조 종합 분석

-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특성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연대구조를 개별 연대구조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단체의 수와 연대구조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
-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인 조사대상 단체의 성숙도에 따른 자원확보의 수준과 내용을 고찰
- 또한 연대관계의 영역별/ 성격별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의 공간적 함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사례조사 대상 단체를 연계 단체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마을활력소’-‘천안KYC’-‘난장애판’-‘즐거운 밥상’, ‘얼굴있는 먹거리’, ‘온양온천시장’순임.

[그림 2] 충남 사회적 경제의 섹터별 자원동원 : 영역별 연대 대상 단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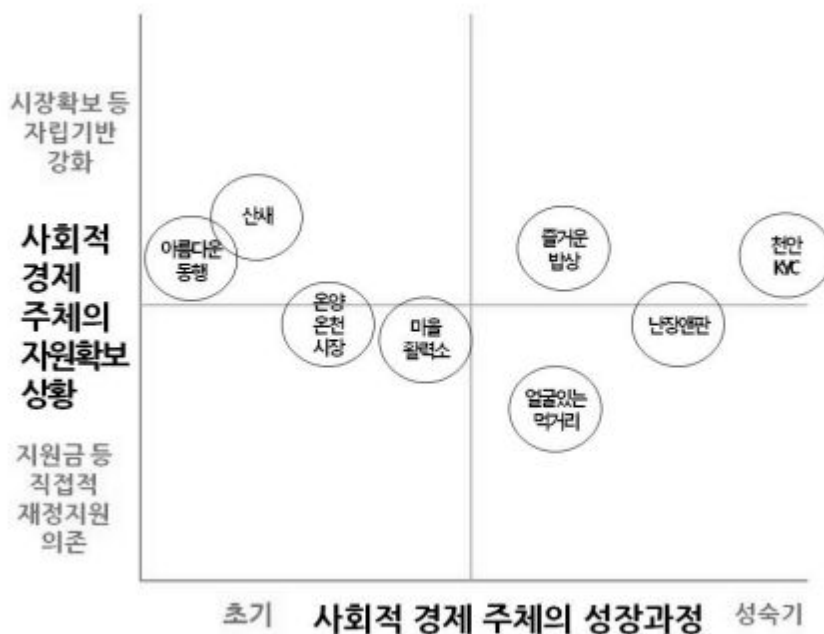
[그림 3] 연대 내용별 단체 수



- 연대의 내용별로 사례조사 대상 단체를 살펴보면, 일정 수준의 협력 관계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이 드러남.
- 연대의 내용은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를 재정지원으로, 무형의 사업연대와 인적교류가 있는 경우를 협력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기타 물적 교환이 있을 경우를 자원 교류로 하여 분류
- 조사대상 단체의 연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굴있는 먹거리’나 ‘난장애판’, ‘온양온천시장’ 모두 자원 교류 비율보다 협력 관계 비율이 높는데, 이는 경제 조직으로서 협력 관계만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임.
- ‘즐거운 밥상’의 경우 영역별 연대 대상 단체 수에서는 제3섹터-사회적 경제 영역 단체 수가 더 높았으나, 내용면에서는 자원 교류 내용을 가지는 단체 수가 더 높은 비율로 역전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최대한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나, 그 내용이 단순 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 교류 관계로 사업 내용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온양온천시장’과 ‘마을활력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온양온천시장’의 경우 시장 전체 차원의 지원 내용과 상인회 한 단위 에 대한 지원이 혼재에 있어 비율이 높아진 반면, ‘마을활력소’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직 초기 단계에 마을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마을활력소’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원된 재원을 홍성군내 30개 단체 사업에 분산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같은 실질적인 사업 교류를 통해 상호 네트워크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이는 단순 연대관계를 넘어 지역의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마을활력소’가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 재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기반 조성의 과정임.
- 사례조사대상 8개 단체의 연대구조를 통한 자원확보 상황을 단체의 성장과정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

- 사회적 경제 주체인 이들 단체의 설립연도를 감안하여 성숙도를 구분하였는데, 실제로는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4개 단체와 설립 후 1년 미만의 4개 단체로 크게 대별되었다(“(주) 온양온천시장”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시점을 적용).
- 자원확보 내용은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금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경우 그림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반면, 연대구조를 통해 시장확보 등 자립기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경우 상대적으로 그림의 위쪽에 위치시킴. ([그림 4] 참조)
- 어느 한 쪽이 아닌 상하 양쪽에 걸쳐 있는 경우 실제로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시장확보 및 협력관계 구축 등도 시작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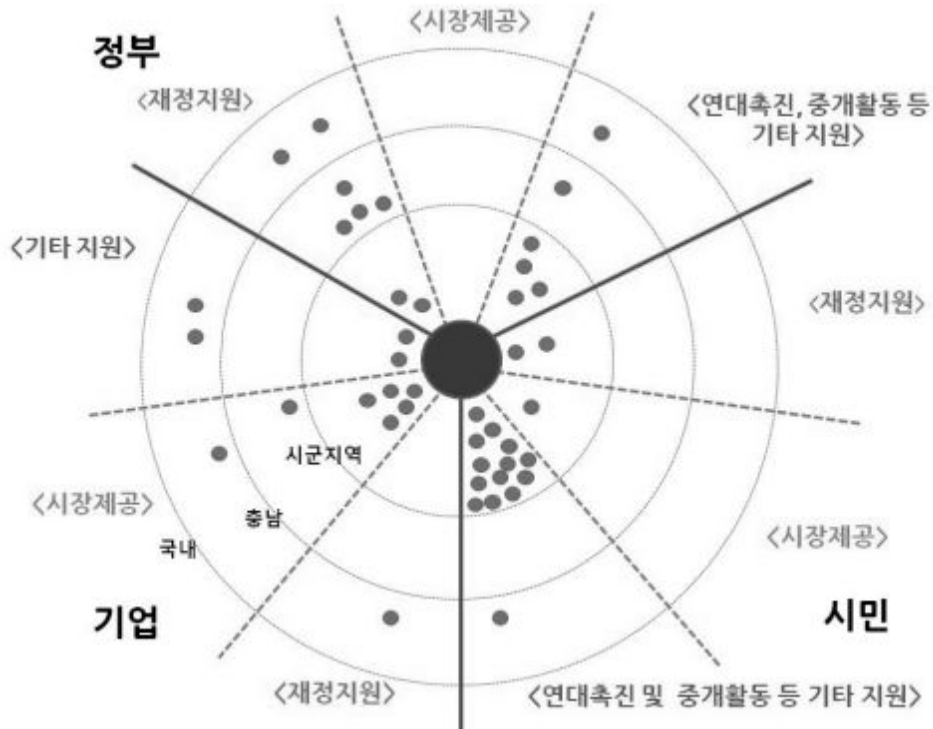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정별 자원확보 상황



-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확보 등의 연계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파악됨.
- 하지만 설립한지 일정 시간이 경과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에도 연대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함 (예: ‘얼굴없는 먹거리’)

- 따라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정에서 직접적 재정지원이 자연스럽게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대구조내에서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연대구조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숙도와 자원확보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 특기할만한 또 하나의 내용은, 시민사회기반으로 신설된 단체 - ‘아름다운 동행’, ‘산새’ - 의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이 전혀 없이 바로 연대구조를 통해 자원확보를 시작했다는 점임.
- 이는 두 단체가 ‘천안 KYC’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반을 바탕으로 출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견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조직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이들 단체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임.
- 두 단체 모두 천안 KY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자원을 확보한 상황이고 설립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내에서 자원확보가 가능할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설립 초기부터 자원을 확보하며 활동을 시작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립기반 확보까지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확률이 높다는 것임.
- 따라서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의 경우에도 연대구조를 통해 자원을 확보할 하여 직접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연대구조내의 자원연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시사점을 가지는 또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바로 섹터별 지원내용과 공간적 범위에 따른 연대관계 존재여부임.
- 아래 [그림 5]는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연대관계 가운데 관계도가 50%가 넘는 경우를 연대의 성격과 내용을 바탕으로 표시한 내용임.
- 각 영역별 연대관계는 크게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적 재정지원과 시장제공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류함.

[그림 5] 충남 사회적경제의 섹터별 연대구조



- 조사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과 가지는 연대관계는 재정지원과 기타 지원에 한정되어있는 반면, 기업과의 관계는 주로 시장제공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민영역에 대한 관계는 대다수가 연대촉진, 중개활동 등 실질적인 자원의 교류보다는 협력관계 구축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관계 특성에서 현재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는 공공영역의 역할이 재정과 기타 지원에 한정되고 실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보호된 시장 제공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 또한 시민사회영역의 경우 지원내용이 협력관계 구축에 집중되고 시장제공의 기능이나 재정 지원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 역시 한정된 역할을 나타냄.
- 반면 기업영역에서는 시장제공 등의 연계관계가 강한 반면 재정지원이나 기타 지원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보임.

- 관계의 유형뿐만 아니라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영역별 차이를 보임.
- 공공영역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충남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단체가 소재한 해당 시군, 충남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비중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광범위하게 연계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공공영역의 지원이지만 연대촉진 등의 기타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됨.
- 기업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연계관계가 공간적으로 보다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시장제공 등을 위한 연대관계는 해당 시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일부만 충남과 전국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지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충남도내의 다른 기업과의 연계관계 등을 통해 추가 시장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줌.
- 시민사회 영역의 연대관계는 그 공간적 범위가 시군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임.
- 실제로 사례조사대상 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지는 연대관계 가운데 해당 시군지역을 벗어나는 관계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상기한 바와 같이 연대관계는 ‘연대촉진 및 중개활동’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소비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의 연대관계가 단순한 협력관계 구축을 넘어서 지역내 소비자 그룹 형성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는 시민사회영역의 연대관계가 가지는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이 ‘소비의 지역화’로 발현될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임.

II.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 사례 : 홍성군 심층사례조사

1) 조사대상 단체 선정

- 충남도 내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기반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충남 홍성군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홍성군내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내 협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 마을기업 등 회사, 마을모임, 시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요소를 망라할 수 있도록 배분 (<표 7> 참조)

<표 7> 홍성군 심층면접 대상 조직 및 면담자 (무순)

구분	방문지	조직개요
지방정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홍성군 사회적 기업 / 마을기업 담당자 면담
지역대학	청운대 건축공학과	지역전문가
협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 마을기업 등 회사조직	홍성축협	자산 2,652억으로 지역내 축산관련 정부지원금 담당
	홍동농협	친환경작목회, 친환경미곡처리장, 부산물비료공장 부설 운영 1970년 설립. 2009년 현재 자산 700억
	풀무신협	40 여 년 역사로 풀무학교 교사 모임에서 출발 2011년 현재 200억 자산
	풀무생협	2011년 풀무영농과 분리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	800명 조합원 보유. 3개(주곡,축산,채소) 작목으로 연 150억매출. 영농법인 설립 운영(2011년 현재)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 (풀무생협,소포장센터등)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2009년부터 참여)
	홍성유기농업영농조합	자연순환 농법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 소비자 직거래. 주요작목 : 곡류, 야채 과일 축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농림부 지원 여성 관련 사업 수행기관 신나는놀이방 / 함께먹는식구들(직판장) 운영
	다살림 마을기업	2010~2011년 마을기업(문당권역 운영위와 컨소시엄) 쌀빵, 쌀과자 등 생산중
마을모임 및 시민단체 등	광천토굴새우젓시장	전통 수산물 가공품 시장
	홍성자활센터장	지역내 자활부문
	홍성 YMCA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현권역추진위원회(거북 이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획
	홍동면 금평리 마을활력소	홍동면내 대표지역 마을재생 전문조직

-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홍성군내 사회적 경제 구조의 특성과 기반강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충남 사회적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 조사결과 요약

① 홍동면을 일대로 장기적으로 구축된 사회적 경제 기반의 존재

- 홍동면에 소재한 풀무학교와 연관기관들을 위한 다년간 축적된 활동의 결과로 홍성에는 사회적 경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진행되어옴.
- 특히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지역리더 양성이 풀무고등학교, 전공부 등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리더가 사회적 경제 구조를 구축해왔음.
- 또한 풀무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토대가 안정화되는데 일조하고 있음.
- 실제로 풀무신협은 전국 신협 중에서도 지역사업 규모와 조합원의 충성도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신협과 달리 풀무신협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사회적 경제 기반은 홍동면이 홍성군뿐만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사회적 경제 실천 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파생시킴.

② 지역성장에 있어 지역내 대학의 제한적 역할 수행

- 홍성군에는 군 지역으로서는 흔치 않게 지역내 2개 대학이 소재함으로써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발전전략 수립과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가 가능한 환경임.
- 하지만 조사결과 지역내 소재 대학 (청운대학, 해전대학)의 경우에도 교수 및 학생들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의 이해 및 활동은 부족한 편이었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또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두 대학의 졸업생이 홍성지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기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남.
- 지역내 대학에 대한 지역민 대다수의 시각도 지역인재 양정보다는 홍성군내 유동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추가수요 정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며, 실제로 청운대학의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 움직임에 대한 홍성군민 일부의 반발도 지역내 유동인구 감소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이는 홍동면 내에서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지역리더 양성이 풀무고등학교, 전공부 등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리더가 사회적 경제 구조를 구축해온 것과 대조적임.

③ 소농을 기반으로 한 지역내 농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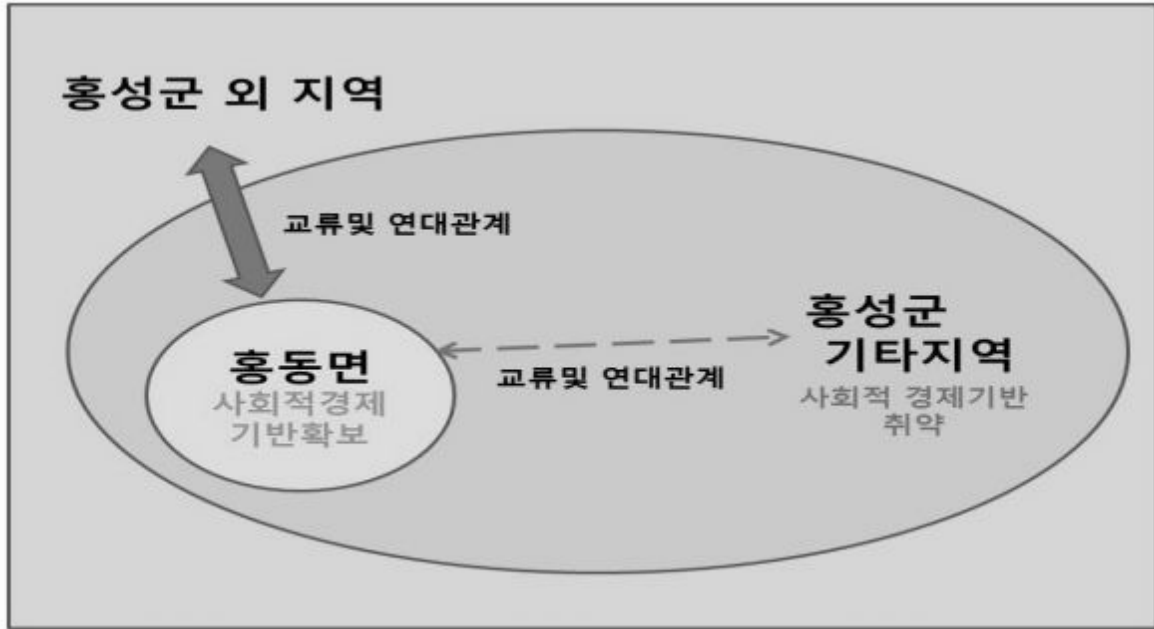
- 홍성군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문당권역, 내현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됨.
- 문당권역의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홍성군을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였으며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기획, 진행되고 있어 마을의 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홍성군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의 경우 지역생협의 경영실패 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 때문에 생산자 조직에서 점차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홍성군의 대표적인 생산자 조직인 풀무생협의 경우 경영전략 부재 등으로 20 여 억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쿱생협연대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지역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이 크게 감소하였음.
- 위탁경영으로 경영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생산자인 조합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소농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였고, 판로를 잃어버린 많은 소농은 유기농에서 관행농으로 전환하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지역내 농업구조의 변화는 지역내 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지역농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이 보다 협력적인

환경에서 생업을 운위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홍성군 사회적 경제 구조의 이중성

- 홍성군 사회적 경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성(duality)’로 요약될 수 있음. (<그림 5> 참조)
- 홍성군 사회적 경제 구조의 이중성은 크게 사회적 경제내의 지역별, 그룹별 격차와 친환경 농축산업의 구조적 특성에서 크게 나타남.
- 먼저 홍성군 사회적 경제내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홍동면과 홍동면 이외 지역의 격차가 두드러짐.
- 사회적 경제 성격이 강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홍성군내 홍동면 인근 지역은 상당히 안정된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마을활력소 등 사회적 경제의 철학을 지역내에서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홍동면의 사회적 경제 기반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홍동면 이외 지역은 인구규모나 산업기반 등에서 홍성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이 취약하며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이었음.
- 이는 홍동면의 주민 다수가 귀농인인 반면, 홍동면 이외 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원주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도 일부 기인함.
- 실제로 선진적이라고 인식되는 홍동면에 노력들이 홍성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홍동면이 연계하는 주요 관계대상이 홍성군내 주체들이기보다 지역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홍동면의 사회적 경제 차원의 혁신성이 홍성군에 고립된 채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2013년 예정된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홍성군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간적 격차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홍성군 지역내 사회적 경제 기반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6] 홍성군 사회적 경제의 이중적 구조



- 이러한 지역내 격차 이외에도 홍성군내 농축산업의 구조상 발생하는 상호배타적 요소가 있음.
- 유기농을 기반으로 하는 홍성군내 산업특성상 ‘친환경’이 강조되어왔고 현재에도 친환경쌀 등이 홍성군의 특산물로 알려져 왔음.
- 이와 함께 홍성군은 ‘한우’를 주요 산물로 하는 축산업이 지역산업의 중심이기도 함.
- 축산업의 특성상 오폐수 처리 문제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지만 지자체나 개별축산농가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여 홍성군내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더불어 상기한 유기농 소농들의 관행농 전환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지역내 대표산업인 농업의 친환경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실정임.
- 따라서 유기축산의 적극적 도입, 축산오폐수 정화시설 구비 등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유기농 대표지역으로서의 홍성군의 경쟁력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공간적, 산업구조적 이중성은 실제 홍성군 전체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확대 발전 시킴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5.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정리

1) 시민 기반을 통한 자발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현

- ‘아름다운 동행’과 ‘산새’의 예는 자생적인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특히 ‘아름다운 동행’의 시민 공모주 방식을 통한 자금 조성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금 마련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산새’의 워커즈 컬렉티브 방식 또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요한 출현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을 통한 일반적 성과

- 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 1개 조직당 평균 8명이 근무/1단체 당 평균 6-7명의 취약계층을 고용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노동 통합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냄.
- ②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 제공** : 기존 정부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한 양질의 도시락 제공이라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중 (예: 즐거운 도시락)
- ③ **지역 경제 활성화** : 조사대상 조직은 지역민 고용비율이 높았으며 충청남도 내 90%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음.
- ④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발굴되고 모임이 이루어지며 이들을 통해 또다른 시민 영역의 활동들이 촉진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함.
- ⑤ **문화 예술 관련 서비스 제공** : 지역내 공급기반 부족 등으로 취약하기 쉬운 문화 예술 관련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공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직간접적인 기여. (예: 난장애판, 마을활력소 등)

4.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

- 충남 사회적 경제 현황에 따른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지역분포도를 보면, 천안·서천·아산·논산 등의 밀집도는 발견되나 도농 지역간 편차는 오히려 크지 않음이 파악됨.
- 이에 사회적 경제 추진역량과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높은 기초 지자체를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밀착형 육성 정책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활동이 부진한 지자체의 공무원 및 현장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
- 지역내 사회적 경제 관련 업체의 업종별로는 농산물 생산가공업이 5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바, 이를 전략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충남도의 삼농혁신·로컬푸드 육성 정책들과 긴밀히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됨.
-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지정 후 미미한 운영실태를 고려해 볼 때, 충청대전 권역내 대도시와 협력하여 공정여행 소비자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농촌관광 사업의 새로운 발전전략 구상도 필요함.
- 평균 고용규모 7명 정도의 소기업 형태가 일반적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조직관리 및 자본조달 모델개발과 지원체계 마련, 소규모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내부거래 활성화 및 공동 원자재 구매·공동 판로개척 등과 같은 연대사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이러한 연대적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위의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역사가 오래된 홍성과 천안에서 섹터별 자원연계도가 높고 다양하며, 특히 홍성군은 자원이 부족한 농촌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력소와 같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배출시키며 가장 우수한 시민자본 동원력을 보이고, 기초지자체내 중간지원조직 유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이에 향후 충남도내 재정 배분시에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립가능한 곳은 지역자원 우선이용, 필요 높으나 자립성이 낮은 곳에 우선투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소외를 줄이되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회적 투자를 추진해 나가야 함.

- 반면 홍성군내 사회적 경제 구조가 가지는 이중적 구조가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와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적 경제 구조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홍성 홍동면 사례를 제외하면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중 대다수가 근로연계형 고용복지정책이나 비영리단체 활동을 배경으로 설립되어 최근 몇 년사이 경제활동을 확장중에 있음이 파악됨.
- 따라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경영역량 지원시에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활용한 접근보다는 선배 사회적 경제 활동가 및 동종업종 네트워크를 통한 동료상담(Peer Consulting)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함께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 시장조직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발견되므로, 다양한 경제조직 임직원· 귀농귀촌자· 은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교육 및 대중홍보, 창업 지원 등도 충남 사회적 경제 발전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충남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대체로 100% 지역민 고용창출을 실천하고 충남도내 순환적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지역 원자재 사용을 원칙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거래의 낮은 수익률, 잦은 정책변경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충남도 및 16개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회적경제와의 협력과 상호발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함.
- 충남도 등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 토대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공공시장을 통한 우호적 구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공섹터와의 협력은 현재까지 주로 재정 및 경영지원과 같은 중앙정부 정책 전달에 한정되어 있음이 드러났으며, 따라서 향후 공공섹터에서 시장조성 지원 정책의 개발이 시급함.
-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기업섹터와의 협력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임. 따라서 도내 상공인협의체를 통한 인식확산 등이 요구됨.
-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섹터와의 연대는 실질적인 자원연계 보다는 정보교류 수준의 간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민섹터내에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역발전을 공동모색하고, 상시적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정부, 시장, 시민영역 모두에서 다양한 관계망의 확립
 - 현재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집중적인 지역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지역내 연대관계를 형성
 -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지지 그룹과의 관계축과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 그룹과의 관계축을 균형있게 확대
 - 지지그룹과 소비그룹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 정부 영역과는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시장의 소비자로서 내용 있는 사업 관계를 형성
 - 시민들의 윤리적이고 호혜적인 구매·자본투자·기부·자원봉사·지배구조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프로그램 개발
- 이상의 조건들은 개별 기업들이 지역 자원 개발과 연대의 지표로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사업내용에 있어서 향후 어떤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항목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때 충남도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도출된 각 주체별 수행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표 8>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주체별 구분	내용
충남도 차원의 지원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남도 및 16개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을 전면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와의 협력과 상호발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 체계를 재편 2. 공공시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우호적 구매 추진 3. 충남도내 재정 배분시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자립성 낮으나 필요성이 높은 부문에 우선투자 4. 지역농업 환경 개선 등 도차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 5. 도내 상공인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경제 관련 인식확산
충남도내 시군구의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산품(서비스) 정부 구매 확대 3.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지역 홍보 및 일반인 교육 강화 4.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관련 행정작업 간소화 5. 사회적 경제 조직 경영지원을 위한 동료상담(Peer Consulting) 등 매칭
충남 사회적 경제계의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 조직의 연계관계 특성 파악을 통한 취약부문 연계 강화 2. 사회적 경제조직의 시민섹터내 협력을 강화하고 상시적 거래관계 구축 3. 지역내 소비자 그룹 형성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경제 조직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2. 충남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수행 및 지원 3.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4.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5. 연대구조내에서 자립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연대구조 활용방안 제시

- 주체별 실천과제의 핵심을 요약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식 공유 차원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연계를 ‘물적 기반’을 공유하는 실질적 연계관계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 물적 기반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연계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금조성, 공동유통망 구축, 윤리적 소비자 등 소비자 기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실현 가능함.
- 또한 홍성군 홍동면의 사례와 같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반이 확보된 지역의 성과가 충남도 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